

한라시론



문영인
서제주키위연구회

제주산 키위 수출 전망 밝다

역할을 하며, 장애 존재하는 미생물과 뇌의 연결축 이론에 따라 뇌의 감정, 인지 기능과도 연관이 된다고 하며, 매일 키위를 두 개씩 먹으면 장과 뇌도 건강해 진다고 한다.

키위는 중국 양자강 유역이 원산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대략 11개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현재 25만ha에서 400만t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키위 재배가 가장 앞서 있는 뉴질랜드에서는 1900년대 초 중국으로부터 들여다 개량하고 상품화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수확이 시작됐다.

제주에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등 키위 재배 적지가 아니어서 도입 초기 노지재배 할 때 태풍에 의해 잎이 전부 떨어지는 피해를 입어 노지재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

법을 찾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게 됐고, 비닐하우스는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물 관리와 온도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균일한 우수한 상품 생산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현재 대략 320ha에서 8000t 정도로 규모가 작지만 제주도에 제2과수로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제주는 겨울이 짧아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추위가 사라지면 꽃이 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키위나무가 겨울철을 나는데 꼭 필요한 7℃ 이하로 유지되는 기간이 20일 이상이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충족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키위 수입국으로 수입량이 점차 증가해 지난해 3만3902t

을 대부분 뉴질랜드에서 수입했으며, 수출은 감소세 343t에 불과했다. 그러나 도내 키위 생산자 단체인 '한라OO영농조합법인'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에 제주산 키위 140t을 수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40%라는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지난 3년 동안 제주도에 키위재배농가에 '고품질 키위 생산기반 사업'을 지원한 결과 이제부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산 키위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뉴질랜드보다 거리가 가까이 시장에서 상품의 신선도가 높고, 중국산보다는 품질이 우수해 소비자들의 좋아 할 것으로 보인다.

5월이면 인공수분이 끝나고 열매 숙기와 영양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이다. 이제부터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선호하는 상품 생산을 위해 정성을 들여 보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신종 감염병 발생이 계속되는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키위는 비타민C가 포도의 7배, 비타민E는 사과 6배, 식이섬유는 바나나의 5배가 들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장수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도 점차 확대될 과일로 주목받고 있다. 100g 크기 키위 한 개에는 식이섬유 3g이 들어 있고, 이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 즉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그 외 비타민C, 비타민E, 트립토판 등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편집국 25시

도백의 메시지



이상민
정치부 차장
hasm@ihalla.com

국토부에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과 도의회와 맺은 합의를 지킨 것이란 주장 등 평가는 갈렸지만 메시지의 목적은 분명해보였다. 그러나 갈등 해결에 방점이 찍혔던 메시지는 한 달도 채 안돼 180도 달라졌다.

원 지사는 제2공항 정산 추진 의견을 제출하며 "이미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는데 국토부가 제주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며 어쩔 수 없이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옹색하다. 원 지사의 말처럼 '책임 떠넘기기' 식 의견 제출 요구를 굳이 거절하지 않고 따라야 했다면 그때부터 남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였다. 더군다나 국토부의 의견 제출 요구는 법적 구속력도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원 지사는 틀만나면 국토부 탓을 했고 그 사이 제2공항 갈등은 더 커졌다.

도백의 메시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리 읽혀도 그만, 저리 읽혀도 그만이라면 메시지에 세금을 들일 이유가 없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다음날 내뱉던 메시지를 곰곰이 되씹어보길 바란다. 왜 그 목적이 순식간에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의무가 지사에겐 있다.

제주도청에 메시지팀이라는 부서가 있다. 메시지팀은 원희룡 제주지사 연설문과 도정 홍보 메시지를 작성한다. 물론 메시지 내용은 이 팀을 비롯해 여러 정부 라인과 실무 부서가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지방정부마다 이와 유사한 부서를 두는 이유는 그만큼 도백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원 지사가 내놓은 메시지에서 도정의 철학을 읽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 지를 가늠한다.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원 지사는 대도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며 "제2공항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 힘을 하나로 모으자"고 했다.

뉴스-in

원 지사 "코로나 사라져 신나게 뛰어놀길"

제99회 어린이날 메시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100주년을 맞는 내년 어린이날에는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다 함께 모여 신나게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전달.

원 지사는 어린이날 기념 메시지에서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하나의 잣대로 평가받지 않고,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이들이 저마다 색깔을 빛내며 마음껏 시도하고, 안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

이어 "어린이들이 사랑 속에 꿈과 희망을 펼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강조. 이상민기자

"어린이헌장 실현되도록"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삶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자라도록 더욱 존중하고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며 기념사를 발표.

이 교육감은 이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명시된 문서가 아닌 실현되는 삶이 되도록 연대하며 나갈 것"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쫓아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 속에서 아이들은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 진선희기자

서귀포시 '감동의 직원초회'

○...서귀포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시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직원초회를 갖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며 눈길.

특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의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통해 공직자가 아닌 아버지, 남편, 딸로서 가족과 통화하는 장면을 시청하며 가슴 뭉클한 감동의 사연을 공유.

김태업 시장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서귀포시 행정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감사하다"라며 "소중한 가족을 돌아보고 따뜻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사설

외부 충격에 민감한 산업구조 개편해야

제주경제는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다. 예고없이 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제주경제의 핵심축인 관광산업이 지역총생산(GRDP)의 73%를 차지하면서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제주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늦추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는 1·3차 위주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제주형 2차산업(제조업) 육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022년까지 617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전 시판매장(3300㎡)을 구축할 계획 이다. 또 제주형 2차산업 중점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조업 비중을 3.8%에서 8%로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이중 대규모 전 시판매장은 제주공항내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중단되면서 수포로 돌아

갔다. 제주형 2차산업 중점육성 종합계획은 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육성을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과 기술개발 지원 등 8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자했으나 제조업 확대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관광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여행사 등 어려움을 겪지 않는 업종이 없을 정도다. 특히 단체관광이 사라지면서 도내 전세버스 업계의 경우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전세버스 가동률이 그대로 말해준다. 2017년 중국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때도 가동률이 30% 가까이 됐다. 지금은 4%대로 급락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염병 등 외부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구조 개편이 손놓아선 안 될 것이다.

전지훈련팀 유치, '차별화' 전략 올인

전국 각 시도가 올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마케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골목 없는 산업'인 스포츠 마케팅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빠르게 자리잡아 온 결과다. 제주 역시 일찌감치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 공격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그간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자부해 온 제주가 유치실적 부진을 만회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도 재현코자 하는 의지다.

최근 도내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9년 7867명 9만4500명을 웃돌았으나 2020년 1341명 2만1721명, 올 현재 240명 5300여명으로 급감했다. 지난 겨울 코로나19 탓으로 해외훈련을 못한 선수단이 제주를 찾았지만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

도가 새 전략으로 '제기'에 나선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지난달말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실행팀과 학교 운동부 유치방안, 유류 체육시설 활용, 인센티브 제공, 기관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새로운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제주의 스포츠 마케팅은 최적의 기후와 시설, 안전 여건, 휴양·레저 시설 등 여러 인프라에 대한 차별화 전략에 새로운까지 더해져야 한다. 타 지역에 없고 제주만 내세울 수 있는 장점, 행정에서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등을 더 발굴해야 한다. 타 지역 유력기업 벤치마킹도 중요하다. 특히 선수단 교통사고 우려도 계속 나오는 만큼 단체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도 확실히 마련, 제주의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도는 관광 상품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3대 산업'으로 불리는 현실에 맞게 체육관련 인적·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부 고

문정도(황운노조) 아버지 남평문공영도(예로니모·전더불어민주당제주도당사무처장·향년 78세)께서 서기 2021년 5월 5일 06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5월 6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5월 7일(금요일) 오전 8시 1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황사평 천주교 묘역

부인 김정순
아들 문정도 며느리 최한수
딸 문아네스 사위 한석준
문수정 고형석
문희정
외손자 이상현 손녀 문은정
이문현 외손녀 이은지
고은찬 고은빈
고은수

※연락처 : 문정도 010-9458-7227
문아네스 010-6530-0095
문수정 010-5755-1127

감사의 말씀

이번 서귀포신협산악회 총대회장 **故 현수오(향년 7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6일

부인 문순정
딸 현유미
사위 양앤드류

서귀포신협산악회일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전주이공 경환(정일·향년 8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6일

부인 김복자
아들 이재경 며느리 문혜경
호경 홍영희
딸 이순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봉열(향년 9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5월 6일

아들 전경탁 며느리 문춘일
윤언 응인 고우정
백건 백건희 고영심
딸 전영희 진희
진희 속희 사위 양정우
김세중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1년 05월 03일 주주들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금 100,000,000원들 금 25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5,000원의 주식 19,950주에 대하여 무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총수 20,000주를 5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또한 본 회사의 위와 같은 자본감소에 따라 본 회사 주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1년 05월 06일

미래건기 주식회사
제주시 신산로 109, 2층(일도이동)
사내이사 강성두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윤미자(1959. 4. 6생)
·최후주소 : 제주시 청곡로1길 3, 2층(이도이동)

상기자는 2021년 2월 1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5월 3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100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화성시 동탄대로24길 199, 474동 1301호 (영선동, 동탄에듀밸리사망로부영아파트)

2021년 5월 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변 나 리**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문정일(1948. 1. 20생)
·최후주소 : 제주시 성화로5길 46, 301동 401호(용담이동, 현대3차아파트)

상기자는 2021년 2월 16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5월 3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100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성화로5길 46, 301동 401호 (용담이동, 현대3차아파트)

2021년 5월 6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문 상 환**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